

發狂한 宇宙

(What Mad Universe)

프레드릭·브라운
(Fredric Brown)

徐光云 訳
(한국SF작가 클럽회장)



1954년에 발사된(이 작품이 쓰인것은 1949년) 최초의 달 로키트는 실패하고 지구와 격돌했다.

낙하지점에 있었던 11명은 버튼式電位差 발생기의 放電으로 죽어버렸다. 그러나 SF잡지「우주의 경이」의 편집자 키스·윈턴은 폭발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목숨만은 건졌으나 충격을 받아 이세계와 나란히 존재하는 단 우주로 轉移하고 말았다.

뉴욕 교외에 있는 사장택으로 놀러와 있었던 키스·윈턴은 별안간 눈부신 심광을 받아 정신을 잃었고 다음 순간에는 낯선 장소에 와 있었다.

깜짝 놀란 키스는 영문을 모른채 드럭·스토어를 찾아서 사장에게 연락을 취하려했다. 그러나 전화번호부에는 사장의 이름도 없고 화폐단위도 달러가 아니라 크레디트였다.

드럭·스토어의 주인은 키스가 갖고있는 1928년제 25센트 동전을 보자 2천크레디트에 사겠다고 나섰다. 그런데 키스가 다시 1943년 제의 硬貨를 갖고있는 사실을 알자 「알크톨스인의 첩자」라고 고래고래 소리쳤다.

키스는 권총알과 자주색의 괴물 「月人」에 쫓겨 가까스로 뉴욕행 열차에 뛰어 올랐다.

열차는 한밤중의 뉴욕에 다달았다. 뉴욕시가는 「濃霧管制」을 실시중이다. 키스는 영문을 모른채 주위의 계시를 뿌리치고 역에서 뛰어나왔다.

그러나 바깥은 코앞이 안보일 정도로 짙은 안개에 쌓여 있었다. 그는 「夜行團」으로 불리는

갱단의 습격을 받고 구사일생으로 빠져나와 간신히 호텔을 찾아 들어간다. 호텔에 들어간 그는 책을 사서 이 세계에 관한 사정을 알고 고 쓴다.

이 세계는 키스가 전에 살던 지구와 아주 닮았는데 커다란 차이점도 없지 않았다. 차이점의 한가지로 이 세계에서는 일종의 워프航法에 따른 우주여행이 실용화되어 누구든지 손쉽게 달이나 화성을 내왕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한편 지구는 알크톨스人들과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알크톨스人的 위조를 막기 위해 硬貨 제도는 폐지되고 영웅 도벨과 그가 만들어낸 만능의 인공두뇌 메키가 지구군을 지휘하고 있었다.

이튿날 키스는 자기가 근무했던 출판사에 가본다. 그러자 거기에는 또 한사람의 키스·윈턴이 일하고 있지 않는가. 뿐만아니라 이 세계에도 「우주의 경이」는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SF잡지가 아니라 우주여행이 현실화한 이 세계에서는 단순한 모험소설의 잡지에 지나지 않았다.

키스는 거리에서 인공두뇌 메키를 목격 했다. 그것은 농구공만한 크기의 금속球로서 상대방이 개인이든 군중이든 텔레퍼디에 의해서 상대방에 말을 걸 수있는 장치였다. 『자네문제를 함께 풀어보자. 3개월 후에 찾아오면 된다』는 식으로.

키스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소설을 쓰기로 작정한다. 소설이 탈고 되자 그는 출판사에 근무하는 또하나의 키스에게 가지고 갔다. 또하나

의 키스는 소설을 보자마자 낯빛이 달라졌다.

줄거리와 등장인물이 왕년에 자기가 쓴 소설과 똑같다는 것, 또하나의 키스는 그를 알크톨스의 첩자임에 틀림없다고 판단하고 경찰을 부른다. 키스는 어쩔 도리 없이 탈출하여「濃霧管制」의 어둠속으로 도망친다.

침침한 어둠속에서 키스는 조오라는 악당과 만나게 됐다. 조오의 도움으로 키스는 가지고 있던 硬貨를 크레딧 지폐로 바꿨다.

두 사람은 선술집으로 가서 환각작용을 일으키는「달주스」를 마셨다. 그때 키스는 당장에 인공두뇌 메키와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도벨과 메키는 현재 지구군을 거느리고 土星 근처에서 알크톨스군과 교전중임에 틀림 없다. 키스는 조오에게 소형 우주정을 훔쳐내달라고 부탁했다.

운 좋게 우주정을 훔쳐낸 후 키스는 조종법을 배워 혼자서 우주로 향했다. 몇차례의 점프 끝에 키스가 탄 우주정은 지구함대와 접촉했다. 키스는 지구의 영웅 도벨을 처음으로 보자마자 기절할 뻔했다.

그는 본래의 지구의 SF팬이었던 도벨버그와 너무나 닮았었다. 그렇게 보면 이 세계 자체도 도벨버그가 생각한 세계가 아닌가. 이 모두가 도벨버그의 夢想세계란 말인가.

메키는 아니라고 대답했다. 서로 조금씩 다른 세계가 수없이 깔려있는 것이다. 그속에는 도벨버그가 공상한 것과 똑같은 세계도 있고 전혀

다른 세계도 있다.

키스는 폭발한 순간에 때마침 도펠버그의 일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계로 轉移되어 버린 것이다.

도벨과 메키는 알크톨스군에서 유일한 초대형 전함을 격파하기 위해서 키스의 머릿속에서 이 세계에는 알려지지 않은 버튼式電位差발생기의 설제도를 찾아낸다.

그 장치를 개량하여 소형로키트의 코끝에 매달아 적함에 육탄공격을 가할 작정이었다.

로키트는 완성됐다. 이야말로 본래의 세계로 돌아갈 수있는 유일한 기회임을 안 키스는 파일러트를 지원한다.

이때 메키가 키스에게 주의를 준다. 돌격 순간에 본래의 세계의 일들을 생각하도록, 만일 만일을 생각하다가는 어떤 세계로 훔날리게 될는지 알 수가 없다.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다. 키스가 탄 로키트의 舷窓너머로 거대한 적함이 도깨비처럼 커져간다. 키스는 필사적으로 생각한다. 본래의 지구... 본래의 지구... 그러나 좀 더 좋은 세계라면, 閃光이 세차게 터졌다.

정신을 차려본즉 키스는 본래의 지구로 돌아와 있었다. 그러나 사정이 얼마간 달라졌다. 그는 이 세계에서 사장으로 자리잡고 좋아하는 여성이 애인으로 되어 있었다. 이야말로 자기에게 알맞는 세계가 아니겠는가. 키스는 흠족해했다.

作家와 作品

프레드릭·브라운(1905~1972)은 미국의 신시내티에서 태어났다. 신문과 잡지의 고정계를 보면서 수많은 단편과 중편을 발표.

1947년에 처음으로 쓴 추리소설〈나의 거리 시카고〉로 미국탐정작가 클럽상을 받았다. 그후 서부지방에 살면서 주로 SF를 발표하기 시작했

다.

〈우주를 손바닥에 놓고〉, 〈천사와 우주선〉, 〈스톤서로부터 한마디〉, 〈미치광어가 되세요〉 등의 단편집을 비롯, 유머SF의 대표작인 작품 외에도 년센스SF〈화성인 고·흠〉, 〈73년의 요괴〉등을 발표, 폭넓은 펜을 가지고 있다.